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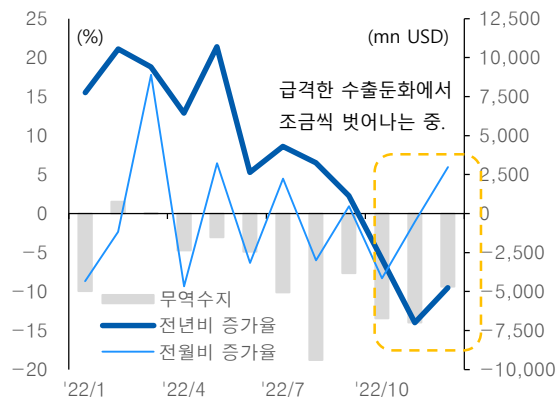


역대급 무역적자의 개선 기대

1. 2022년 무역수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

- 글로벌 성장률과 동행한다고 볼 수 있는 글로벌 교역량은 둔화세가 상당한 모습.
- 2022년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기준으로 -472.3억불을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
- 전년비 수출증가율 부진이 지난 12월 이후부터 소폭 개선되었고, 무역수지 역시 조금의 반등세도 관찰.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빠르게 위축된 수출증가율은 최근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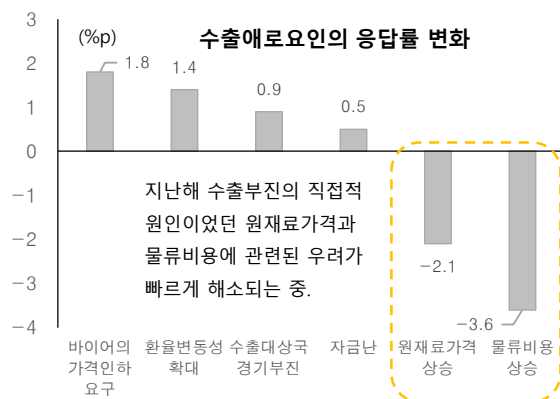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실제로 체감되는 수출경기의 방향성

- 지난해의 가장 두드러진 우려로 원자재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상승에 우려가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
- 지금부터의 우려사항인 환율변동성 확대는 이미 빠르게 원달러환율의 진정이 진행되었음.
- 수출계약과 수출채산성 등 이익과 직결되는 항목에서도 지난 4분기 당시 최악의 전망보다 빠르게 개선.

지난해 수출을 위축시킨 거시적 환경인 원재료가격과 물류비용의 해소를 기대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2022년 무역수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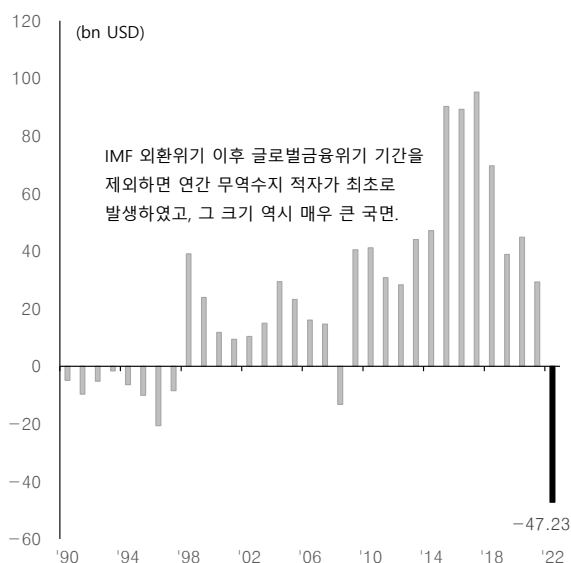
2022년은 여러 가지의 경제지표 변화가 크게 발생하였던 시기였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급격한 스탠스 전환으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에 있어서 급격한 심리 변화 및 각종 자산가격 역시 큰 변동을 보여주었던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

실물지표 역시 가격지표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성장률과 동행한다고 볼 수 있는 글로벌 교역량은 둔화세가 상당한 모습이었으며, 특히 전세계 교역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한국의 수출 역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측면에서 조금 더 부진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472.3억불을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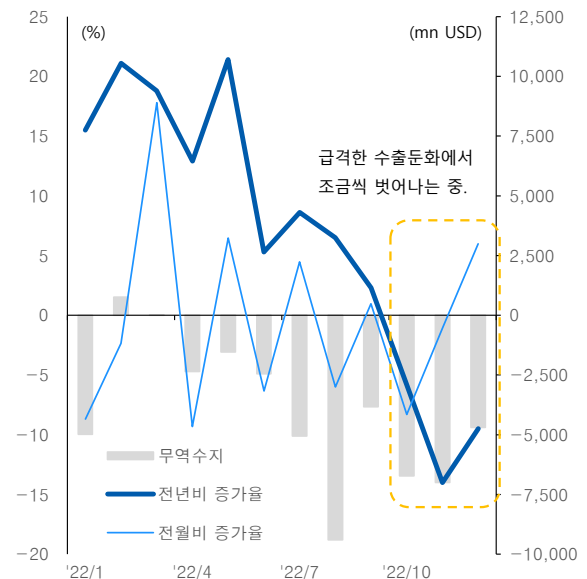
다만 한국 수출에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의 움직임은 약간의 기대 요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년비 수출증가율 부진이 12월 기준으로 소폭 개선되었고, 무역수지 역시 조금의 반동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차트1] 교역 규모를 감안할 때 지난해는 연간 가장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빠르게 위축된 수출증가율은 최근 조금씩 반동을 시도하는 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실제로 체감되는 수출경기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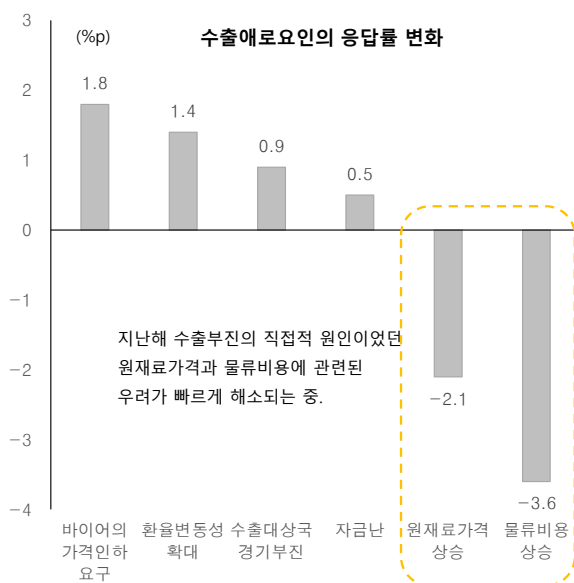
분기별로 발표되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4개분기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종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준점인 100pt를 하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전히 수출에 대한 반등 기대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출의 어려움에 있어서 그 원인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가장 두드러진 우려로 원자재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상승에 우려를 표하였으나, 금년의 애로요인으로는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와 환율변동성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가격인하 요구는 물가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단가 측면에서의 변화가 크게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환율변동성 역시 최근에 빠르게 진정되었다. 이미 물류비용과 원자재가격은 하향안정된 만큼 수출기업이 우려하는 수준보다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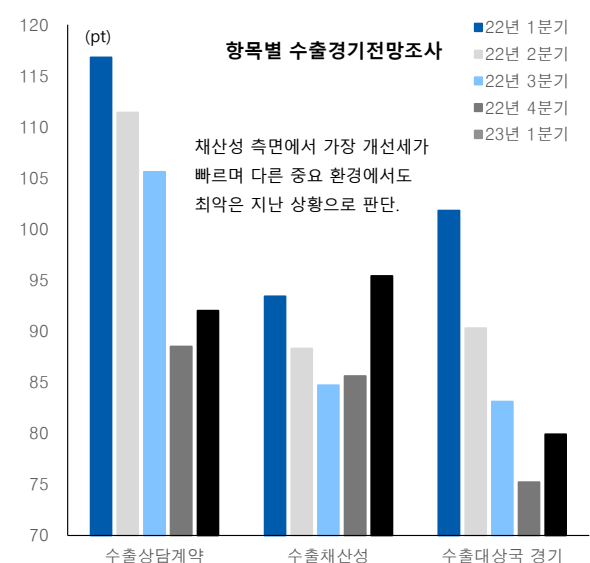
수출계약과 수출채산성 등 이익과 직결되는 항목에서도 지난 4분기 당시 최악의 전망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의 생산활동 재개 등의 환경도 한국 수출에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차트3] 지난해 수출을 위축시킨 거시적 환경인 원재료가격과 물류비용의 해소를 기대.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수출기업이 1분기 수출을 바라보는 관점은 마진 측면에서 개선을 기대.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